

맛으로 읽는 중국사...혁명은 매운맛? 평등의 맛!

혁명의 맛

가쓰미 요이치 지음

중국처럼 여러 민족이 다스렸던 나라도 드물다. 한족, 몽골족, 여진족, 만주족, 후이족 등 패권을 잡거나 전쟁과 교류를 통해 서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음식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여러 민족의 전통 음식이 뒤섞여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또 패망과 건국, 혁명 등을 통해 지배층이 바뀌는 과정에 사랑받는 음식도 달라졌다.

일본인 미술품평가인 가쓰미 요이치의 ‘혁명의 맛’은 중국 역사 속 음식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중국 4대 요리(베이징 요리, 상하이 요리, 광둥



요리, 쓰촨 요리)의 특징과 기원 등을 소개한다.

청나라 시대를 예로 들어 보자. 청나라는 한족과 만주족 문화가 격렬하게 뒤섞였다. 만주족은 한족의 문화를 수용했다.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요리의 명인들은 자연스럽게 관리나 환관에게 고용됐다.

제6대 황제 건륭제는 만주족이면서도 한족 요리를 좋아했다. 그는 강남 요리를 먹으러 자주 갔고, 자연스럽게 항저우의 요리가 자금성에 전해졌다. 이처럼 한족의 맛은 다른 민족에 의해 해체되고 종합돼 오늘날의 ‘중국 요리’가 됐다. 또 한족은 몽골족, 후이족과 동화하면서 요리의 수도 늘었다.

청나라 왕조는 한족 요리에 만주족의

여러 민족의 전통음식 뒤섞여 새로운 요리 탄생

패망과 건국, 혁명 통해 사랑받는 음식도 달라져

풍미와 몽골 스타일의 맛을 섞고, 후이족 요리를 더했다. 반면, 몽골은 철저히 한족 문화를 배척했다. 쿠빌라이 칸은 문자마저 티베트 승려에게 만들게 했고, 한족을 최하층에 두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쿠빌라이 등 지배층은 양고기를 즐겨 먹었고, 베이징 등 중국 북방에서도 몽골 요리는 일반 가정에서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황실의 부패와 몰락이 요리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시각도 독특하다. 과거 황실이 금지했던 상어 지느러미에 탐닉했던 서태후는 지질 줄 모르는 탐식가였다. 서태후의 ‘맛의 사지’ 덕에 중국 요리는 더욱 풍부해졌다.

명나라의 주원장은 강남 출신답게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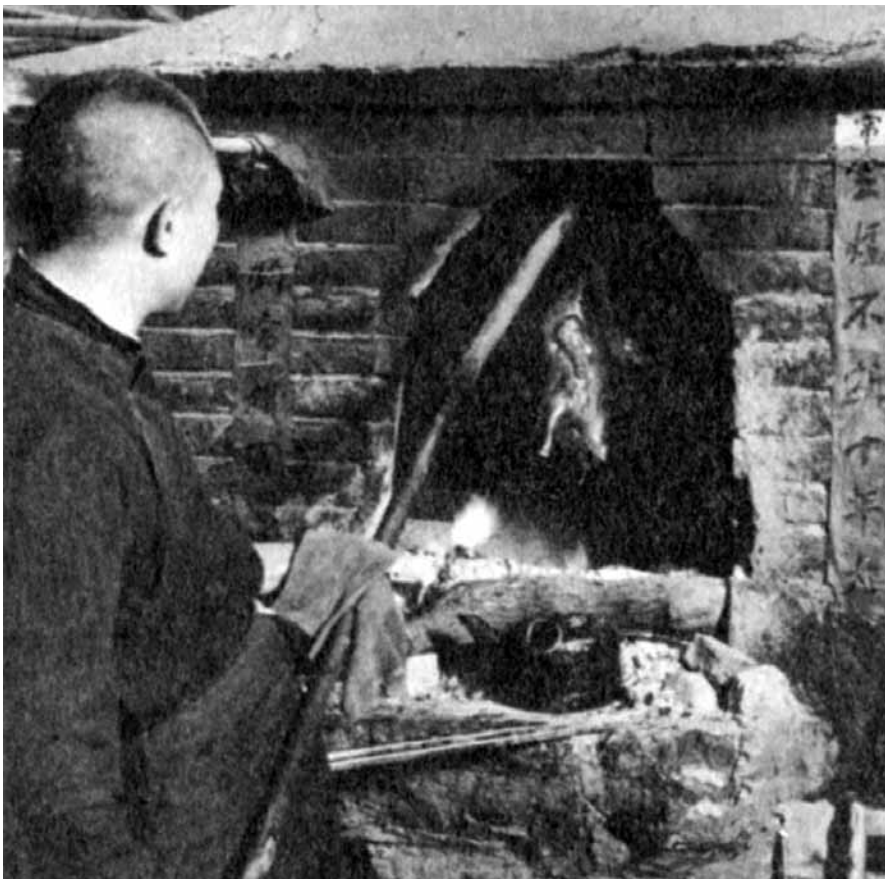
물을 좋아했다. 새우볶음, 대하구이, 해삼, 전복, 상어고기 따위를 곧잘 먹으면서 지배층의 음식 문화를 바꿔 놓았다.

또 중국 음식 변화 과정에 환관들의 역할도 컸다. 환관들은 잃어버린 성적 쾌락 대신 맛을 선택했고, 각지에서 산해진미와 진귀한 식자재를 들여왔다. 환관들이 미식의 쾌락에 탐닉하면서 중국 음식도 더욱 풍부해진 셈이다.

재미있는 대목은 중국의 전직 궁중 요리사들이 음식점을 차리면 하나같이 실패한다는 점. 중국 궁중 요리는 지극히 순수하고, 엄격한 맛을 추구했기에 보통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힘들었다.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도 중국 요리는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마오쩌둥은 매운맛을 좋아했고, 저우언라이는 단맛을 즐겼다.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은 각지의 유명 식당을 접수하며 음식점에도 사회주의 사상을 심어 놓았다.

〈교양인·1만6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덕 앞에서 오리를 굽는 ‘전취덕’의 점원(1930년대). 베이징식 오리구이로 유명한 음식점 전취덕은 1864년 노점에서 출발해 1952년 국가와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공사합영 음식점이 되었다. 〈교양인 제공〉

도시의 삶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원시의 삶 살고 있는 ‘기인’들 이야기

나는 자연인이다

MBN 제작팀 엮음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과학과 사회의 발전은 현대인에게 편안한 생활을 안겨줬지만 부작용도 함께 가져왔다. 순한 질병, 고독 등은 현대인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명이다.

이에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연 속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영한 ‘나는 자연인이다’가 책으로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의 삶을 포기하고 산 속으로 들어가 원시의 삶을 살고 있는 ‘기인’을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자연에서 살면서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거나 평화를 되찾은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됐고, 개그맨 등 유명인들이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기를 끈 프로그램이다.



동명의 책에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 만나온 자연인 가운데 아픈 몸과 마음을 자연에서 치유한 특별한 8명의 이야기

기를 담았다.

이들은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산을 찾았고, ‘산이 이루어낸 기적’을 체험했다. 죽음을 앞뒀던 사람이 병을 고치고, 자연 속에서 먹을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

또 버려진 낡은 집을 고치거나 움막을 지어 살아가는 불편을 견뎌내면서도 자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사연도 특이하다.

〈다온북스·1만7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나쁜봄=2001년 단편 ‘미(美)’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하고 2012년 중편 ‘단추’로 김유정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심상대의 첫 장편소설로 개인과 욕망이 억압된다면 그곳이 낙원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자신의 사십대를 “미혹(迷惑)의 세월”이었다고 말했던 작가는 그동안의 방향을 접고 다시 고향 강릉으로 돌아와 책상머리에 앉았다. ‘네이버 웹소설’에 연재(2013년5월~7월)되었던 글을 묶어낸 이 작품은 앞으로의 10년을 온전히 소설에 바칠 작가의 새로운 도전이며 시도로 읽혀진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희생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를 것인가, 불의에 눈감



고 자리를 지킬 것인가. 내부 고발은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를 밝혀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보다 사회의 안녕과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내부고발자는 청송받기는커녕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된다. 책은 오랫동안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지원을 맡아왔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지점을 소개한다.

〈한울·2만4000원〉



▲무솔리니 나의 자서전=이탈리아의 베티토 무솔리니하면 파시즘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주도한 인물로 독재체제를 확립한 인물이다. 이 책은 무솔리니가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난 직후인 1928년 출간한 것으로 그의 성장 과정은 물론 파시즘 체제의 구축 과정이 담겨 있다. ‘파시즘’에 비판적이지 않고 오히려 보기 좋게 포장해

놓았기 때문에 내용을 역으로 읽어나가는 독서법이 필요하다. ‘독재는 어떻게 태어나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는 그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인·1만3000원〉

▲글로벌 관점과 지리 교육=지리를 왜 가르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리 교육의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 지리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진리를 배우는 그 자체에 계몽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도구적 목적으로 지리 이면에 있는 어떤 목적, 즉 다양한 스케일의 사회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책에는 영국에서 지리 교사로 재직하던 저자의 연구 경험과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어 글로벌 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푸른길·2만원〉

어린이 책

▲우리 반 털 고민 상담소=‘털’에 대해 쓸모없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그런 어린이들은 털 때문에 몸이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인다고 생각한 나머지 털을 부끄러워하고 없애려고 한다. 책은 털 귀신 이야기를 듣다 스친 털 때문에 기절한 적이 있는 최강이 친구들과 털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털에 대해 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던



털이 사실은 우리 몸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최강과 친구들이 깨닫는다는 얘기다. 〈스콜라·9800원〉

▲떴다 떴다 비거, 날아라 정평구=새처럼 훨훨 하늘을 날고 싶었던 평구는 큰 연을 만들어 등에 달고 매일 언덕길을 내달린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하늘을 나는 꿈을 현실에서 실현시켜보고자 했던 정평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를 만들어 왜적의 침입을 막고 백성들을 구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라이트 형제보다 300년이나 앞서 하늘을 날았다.

〈머스트비·1만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화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지고 나중에 후회를 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화해는 용기와 필요하며 화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과 하나로도 충분히 이끌낼 수도 있다는 것을 책은 말해준다. 주인공 상진이와 준석이를 통해 친구 사이에 누구나 경험했을 우정과 다툼, 화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과연 나라면 누구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영림카디널·1만1000원〉

2만7천명 인물정보 한눈에... '2015 한국인물사전' 발간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국내 최대 인물사전
'2015 한국인물사전'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수록한 '2015 한국인물사전'이 발간됐습니다.

연합뉴스가 펴낸 이 사전은 정·관계를 비롯해 경제계·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체육계·종교계 등에서 활동하는 저명 인사를 두루 망라하는 국내 최대의 인물사전으로서 자세한 인물정보와 함께 사진까지 담아냈습니다.

특히 기획인물편에서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4천여 명의 명단(상권 수록)과 프로필(하권 수록)을 한 책으로 편집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수록 인사들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자료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인터넷과 관련 문헌도 꼼꼼히 참조해 보완했습니다.

2015년판은 지난해에 비해 3천여 명을 추가했으며, 수록인물들도 상당수 바뀐 최신한 인물 소개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 국배판 · 상권 1천244쪽 / 하권 1천612쪽
■ 가격 : 18만원

구입 문의: 서울 (02)398-3590~3, 3 (031)238-2222, 인천 (032)427-1236, 대전 (042)521-9705, 광주 (062)264-5777, 부산 (051)441-7400, 대구 (053)355-3800

연합뉴스 YONHAPNEWS.COM